



金首의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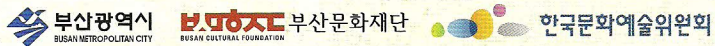
박재연작



# 2012. 9. 11(화) 19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주최 | 김진홍전통춤보존회

후원 | (사)부산무용 협회, (사)부산 민속예술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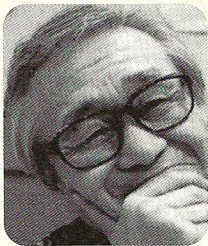


기획 | 김갑용

스텝 | 의상(여원), 분장(장대훈, 김정원)

문의 | 011-9966-0845, 051)646-0845

## 동래한량춤 이야기 대담



### 사회 • 주경엽

화가, 부산민학회 회장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부산시 건축(교건축) 위원 역임, 부산시 시정 자문위원



### 대담 • 김은경

사)부산광역시 민속예술 보존협회 이사장(現)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연합회 회장(現)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동래고무 예능 보유자(現)



### 사회 • 김해성

부산여자 대학교 교수  
한국무용연구회 이사 및 논문편집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분야 교육위원

시기워진 감에  
이젠 알고  
듣고 보고, 그런 날들이  
나이 들을 바라본다.

귀 밝고  
눈도 밝아  
이젠 즐겁기만 하다.

浮雲 金眞紅



## 공연내용

### ※ 호접몽

안무/구성·김진홍, 춤·김해성,이귀선,이인태

날개 없는 인간이 비상을 꿈꾸듯, 자기 초월과 해방의 바람이 담겨있는 장자의 호접몽(나비꿈)은 혼돈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자유에 대한 동경과 갈망을 ‘꿈’이라는 잠재의식 속의 세계를 통해 보여준다.

### ※ 남성군무 동래한량춤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춤·김갑용, 이동재, 박성호, 김기원, 박상용, 배승채, 허태성, 전승환, 문용민, 김동오, 김이대

예부터 동래지방에는 멋과 풍류를 세월에 안은 듯한 투박한 춤사위와 동래춤 특유의 덧뵈기 사위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변모되면서 장중함과 호방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남춤이 발전하였다. 동래한량춤은 양반사대부의 여유로움의 멋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춤사위에 담아낸 고풍스러운 절제미를 통하여 우리 춤의 진수를 보여준다.

### ※ 영남입춤 (김진홍류)

춤·최영난, 지영숙, 김필분, 이귀선, 김연선, 김선희, 황지인, 김규남

영남입춤은 기교와 현란함으로 치장하지 않은 투박한 춤태와 완만한 기교를 지니며,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어깨와 팔의 움직임의 독특한 춤사위를 내면의 성숙으로 승화시켜낸 춤이다. 이춤은 195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던故이춘우선생(대구 달성권번 정소산의 후인)의 춤사위를 그대로 담아전하고 있다.

### ※ 태평무 (특별출연 : 홍진희)

### ※ 대담 김진홍 춤 이야기 (주경업, 김은경, 박재연, 김해성)

### ※ 김진홍과 여성동래한량춤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춤·최영난, 이영아, 김필분, 김규남

### ※ 진주교방굿거리 (특별출연:원미자)

### ※ 살풀이 춤 (특별출연:정명숙)

### ※ 승무 (스승과 제자의 춤:김진홍, 김필분)



## 살풀이 춤

살풀이춤은 살 즉, 살의 역을 제거 소멸시켜 안심입명을 가져오고 나아가 행운을 맞이한다는 종교적 속성이 강한 춤이다.

살풀이춤은 원래 흥사를 미리 피하도록 하는 살풀이굿에서 무당이 살풀이 음악에 맞추어 추던 무무에서 파생되었으나 이것이 후에 전통 속에서 길러지고 가꾸어지는 과정을 통해 민속춤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살풀이춤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곡선과 흡잡을 때 없는 섬세한 버전 목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누군가의 표현처럼 춤 언어가 부족하고 춤이 건조해질 때 언제나 맑고 깊은 샘물처럼 춤꾼들 곁에서 지켜주고 정진시켜 주는 춤이다. 또한 고도로 다듬어진 전형적인 기방예술로서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닌 신비한 느낌을 주는 춤이다. 특히 정적미의 단아한 맛과 함께 정과 한이 서린 비장미가 몸에 스며 있다. 이 춤은 수건으로 무수한 선을 그리는 가운데 여인의 한복 선 같은 은은한 곡선미를 갖추고 있으며, 가락에 따라 멈췄다가는 터질 듯이 움직이는 동작은 슬픔을 풀어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인간 감정의 양면성을 표출한다.



### 정명숙

- 現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후보
- 現 정명숙 전통춤 예술단 예술감독
- 現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부이사장
- 現 사)판소리고법보존회 부이사장
- 키르키즈스탄 비비사라 베실라리바 국립예술대학 명예 예술학 박사학위 수여
- 뉴욕 카네기홀 개인발표회 등 총32회 개인발표회
- 前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
- 前 한국무용협회 창단위원
- 前 한국무용협회 이사
- 前 국립무용단 재기생
- 前 강원대, 명지대, 성신여대 출강



##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태평무는 전래 의 왕거리 당곳의 특이한 무속 장단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춤은 경쾌하고 특이한 발짓 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절도가 있어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은 낙궁, 터벌림, 섭채, 율립채, 도살풀이, 자진도살풀이 등으로 우리민속 음악의 대표적인 가락과 장단이 고루 어우러져 매우 독특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홍진희

-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수석 이수자
- (사)한국국악협회 감사
- 홍진희 춤 연구회 대표
- MBC 조선왕조 5백년 전속인무, 무용단출연
- 뉴욕 링컨센터공연
-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지도교수



## 진주교방굿거리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고려 문종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9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민속무로서 요즘 국립국악원에 해당되는 교방청에 의해 전승 되어 내려온 춤이다.

이 춤은 우리 전통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와 정중동을 고루 갖춘 춤으로 시작은 아주 느린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여 차분하면서도 온유하며,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무대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후반부의 소고 가락이 나올 때면 객석까지 흥이 전달되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다.

이 춤은 故김수익(예능보유자)선생님으로부터 전승되어 1기 회장인 원미자 외 이수자들로 전승 보존되고 있다.



### 원미자

- 선경춤 보존회 대표
- 사)한국공연예술 협회 회장
- 2006년 올해의 무용예술가대상 수상
-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승전무)이수자
- 경남 무형문화재 (진주교방굿거리) 1기 이수자
- 현대예능고등학교 교장역임
- 흥익문화예술학교 학장
- 한양대학교 공연예술교육원 주임교수
- 김진홍 사사

## 승무

승무는 민속춤의 모든 기법이 집약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예술작품이다. 허공 가득 뿌려지는 힘 있고 호화로운 장삼 자락은 공간적 형태미의 가장 무르익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며, 구성지고 풍요로운 민속장단의 굿가락은 몰입지경의 혼연일체 속에 내면의 승화로 이어진다. 허공을 휘저어 크게 뻗고, 꺾어진 장삼 자락의 음전한 기품은 꽃을 본 나비와 같이 하늘거리고 바닷바람을 안은 갈매기의 비상처럼 천지(天地)를 아우르는 선생의 승무는 큰 신명을 놀려 되새김질하듯 조금씩... 흥을 풀어내는 절제미는 품위 있으면서 무겁게 이어지는 넉넉한 부산춤의 진수를 보여준다.



### 김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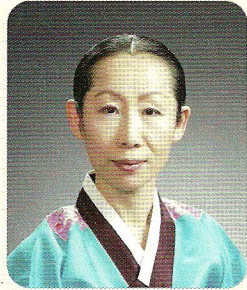
- 동래한량춤(부산시 무형문화재 제4호)
- 동래한량춤보존회장
-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예술감독
- 부산무용협회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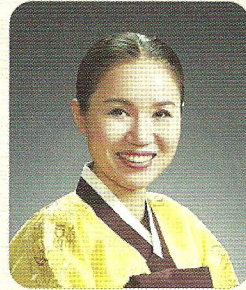
김진홍 전통춤 보존회 회원



최영난



김필분



김해성



장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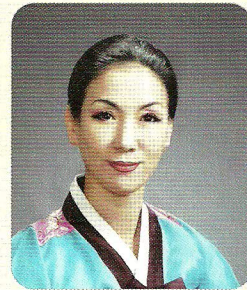
이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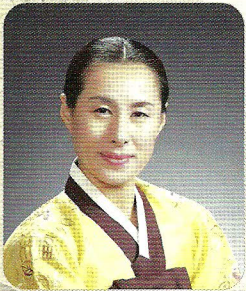
송진수



지영숙



이영아



김신희



김선희



황지인



김정원



김연선



김규남

동래한량춤 보존회 회원



김갑용



이동재



박성호



이인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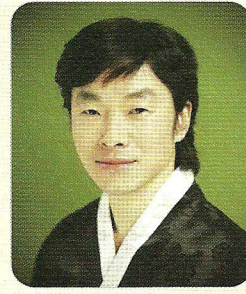
김기원



박상웅



배승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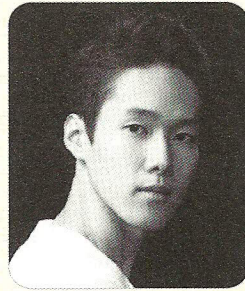
허태성



문용민



김동오



전승환



김이대